20대 대선 후보들의 주식·암호화폐 공약 살펴보니

웨스틴 조선 서울 "봄날의 힐링 향멍 어때요"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은 인센스 스틱 브랜드 올피움과 함 께 '스프링 인-센스' 패키지를 론칭했다. 웨스틴 조선 서울이 올피 움과 협업한 '스프링 인-센스' 패키지 한정판 올피움 인센스 스틱 기프트 박스를 증정한다. 전통 천연 향을 비롯해 유칼리투스, 바 질, 머스크 등 서구적 아로마테라피 등 4가지 향으로 구성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13 *스로*초동아

강원도 평창의 알펜시아 리조트(사진)가 11년 만에 새 주인을 맞는다. KH그룹은 특수목적법인 KH강원개발 을 통해 18일 강원도개발공사에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 입대금 7308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KH강원개발이 이 번에 인수하는 시설은 리조트 내 특급호텔(인터컨티넨 탈 홀리데이인)과 콘도·워터파크·스키장, 회원제 골프 장(27홀), 대중제 골프장(18홀) 등이다. KH그룹은 보도 자료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휴양지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재탄생시키겠다' 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계열사를 통한 시너지 효

11년 만에 '알펜시아' 새 주인 된 KH그룹

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코스피5000·양도세 폐지…2030 표심 노린다

〈이재명 후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캐스 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를 겨냥한 주 식 및 암호화폐 공약이 눈길을 끈다. 부 동산의 기회를 잃은 2030세대가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 비율을 높이며 반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주가조작 등에 강력 처벌' 윤석열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심상정 "기업 집중 산업구조 개선" 안철수 "물적분할 회사 상장 금지" 李·尹·安, 친 암호화폐 공약 내놔

●각자 방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먼저 주식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주 요 후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식시장을 살리 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각기 방향 이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투 명성과 공정성 확보 후 성장성을 갖춰,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방안으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거론했다. 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모주 청 약 시 개인 비율을 늘려 소액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세제 부 담 완화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 웠다. 증권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고. 내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 지하는 게 핵심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이중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주식 및 암호화폐 공약이 눈길을 끈다. 코스피 지수 2744.52로 마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 전광판. 뉴시스

대선후보 주식·암호화폐 관련 주요 공약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주식 장기보유자 대상 양도세 우대세율 적용
- 암호화폐 과세 방안 재검토
-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산업진흥청 설치
- - 오너리스크 및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개선 암호화폐 수익 비과세 기준

현행 250만 원 유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 - 물적분할 상장 금지 • 공매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결 •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 공시 의무화

가 엿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오너리스크와 대기 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꼽았다. 대주주 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흔들리고 회 계 및 주가조작이 당연시되는 것을 지적 한 것으로, 이를 개선해야 적절한 주식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내 증 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세를 한다는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 기업 오너가 대주주로서 권한만 행사하

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상장한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 지솔루션과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페이 를 직접 겨냥하며 "소액주주들은 피해 를 보고, 대주주만 이익을 얻는 분할 상 장, 즉 물적분할된 회사의 상장을 금지 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 필요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높아 폐지 요 구가 나오고 있는 '뜨거운 감자' 공매도에 대해서는 "폐지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 요성은 있다"고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 기관 및 외국인 과 개인투자자간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90일 안에 상환해 야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은 상환 기한 에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내놓았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가 10% 이상 급등락하는 등 변동폭이 큰 경우 강제적으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 자동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매도 정보의 비대칭

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을 투명하게 파악 해 소액투자자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 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 암호화폐 정책 vs 규제 강화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 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친 암호화폐 정책을 내놓은 반면, 심상정 후보는 반 암호화폐 정책을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암호화폐 법제화 추진. 국내 암호화폐 발행(ICO) 허용, 암호화 폐 투자수익 공제 한도 확대 및 손실 이 월 공제 적용 등 암호화폐 과세 방안 재 검토 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암호화 폐 투자수익에 대한 기본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린 다고 했다.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주식 시장에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 역시 암호화폐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디지털자산기본 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ICO 허용, NFT(대체불가능 토큰) 거래 활성 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 관리 및 감독을 전담하는 디지털산업진 흥청 설치 공약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안철수 후보는 보안기업 '안랩'의 설 립자답게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 공시 의 무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의적인 입출 금 제한 금지 등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 로 내건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암호화폐는 투 기적 성격을 가진 초고위험 투자"라고 꼬집으며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제도화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암호화폐 시장 하는 기능이다. 즉 공매도에 서킷 브레이 제도화,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 커를 도입해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는 규제 강화, 암호화폐 관련 사업 인가 하락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제 운영,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공 제 금액은 250만 원 유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등산 즐기는 당신의 무릎 통증. 방치마세요

요즘 등산이 대세운동으로 인기다. 등산은 지구력과 근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다. 하지만 산을 오를 때는 평지보다 더 많은 하중이 무릎에 실리는데 평 지가 아닌 길을 오르내리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무릎의 부상 위험도 높아진다.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연골이 마모된 것인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주는 것이 연골판이다. 연골판과 연골의 손상 및 마모의 정도가 무릎의 수명을 결정짓는 다. 등산이 무릎에 주는 부담은 상당히 크다. 오르막에 는 체중의 두 배, 내리막에는 체중의 세 배 하중이 무릎 에 가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등산은 일단 산을 오르면 하산 전까지는 완전한 휴식 을 취할 수 없다. 꽤 긴 시간 휴식없이 몸을 쓰는 고강도 운동이다. 하산은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날씨, 동반 인, 촉박한 시간, 지친 허벅지, 미끄러운 길 등 여러 상 황의 영향을 받는다. 부상을 당해도 당장 휴식을 취하거 나 관절을 쓰지 않는 상태로 병원에 가기 어렵다. 때문 에 산을 내려가면서 손상된 부위가 악화되거나 복합적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등산을 즐긴다면 평소 허벅지 근력운동을 충분히 하 는 것이 좋다. 등산일에는 긴장된 근육을 풀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낭 은 몸무게 10% 이하로 들고, 발에 맞는 등산화로 관절

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인다. 등산 중 경미한 손상은 통증이 완화 되면 치료를 미루는데, 약물이나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

니 증상을 느끼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신세계서울병원 정진화 병원장(관절센터)



◇한국마사회 ▲부회장 겸 건전화본부장 송철희 ▲사업 기획본부장 김홍기 ▲경영관리본부장 최원일 ▲말산업 육성본부장 오순민

壬寅年 寅月 寅日 寅時 사인검 만드는 날









사인검, 참사검, 사인도식칼 주문

042-863-0076,0078 sword100.com